

### 1. 개요

- 일시 / 장소 : '20. 11. 18(수). 15:00~17:10 / 농특위 22층 버텍스홀
- 참석 인원 : 16명
  - (TF 팀)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박미선, 안기완, 유영민, 이성권, 이임영, 이학래, 최무열 위원 (10명)
  - (관련기관) 산림청 이동진 사무관, 농경연 구자춘 연구위원, 목재칩연합회 심창훈 사무총장(3명)
  - (사무국)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윤종혁 사무관, 오황기 전문관(3명)
- 주요 내용
  -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
    - \*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 '21년 산림TF 의제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 산림TF 운영방향 및 추후 일정 등 논의

### 2. 회의 결과

-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
  - 큰 틀에서의 방향제시는 좋은 반면 현재 여건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보강 필요. 예를 들어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 사유림 경영이 필요하나 수익률이 낮고 부채산주 비율이 높아 직접적인 경영이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직불금 제공하고 위탁경영을 실시한다는 식의 제도의 필요성 근거를 제시

-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3가지 방향 중에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규제완화로 인한 공익가치 감소도 고찰
- 제안된 정책방향을 통해 공익가치가 증진될 것이라 논리전개가 필요함.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면 경영이 활성화되어 공익가치 증진과 연계된다는 것은 설득이 어려우므로 임업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경영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목재생산을 통한 임업의 산업화가 쉽지 않으므로 목재분야 정책 대안 추가되어야 함
-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 증대를 위한 산촌 및 휴양림 활성화가 강조되어야 함
- ‘산림이용’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산림경영’이 활성화되고, 산림경영을 통해 결과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음. 산림복지도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목재와 동일하게 산림이용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산림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수반되어야 함. 산업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음
- 산림분야가 아닌 타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도 고려하여 충분한 배경설명과 목적,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겨져야 함. 과제별 세부 사업을 1쪽 이상 작성. 제안된 정책방향에 대해 체계도 또는 도식화하여 추진의도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바람

#### □ '21년 산림TF 의제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 산림은 국가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령화되는 산림의 경영개선을 목표로 ‘2050 Net-Zero 달성을 위한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촉진’을 제안

- ‘산림순환’ 등은 전년도 의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 제안 필요
-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가치 증진 방안’을 제안
- 산림의 ‘이용’과 ‘복지’에 관한 산업화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역기반 순환형 산림경영’ 필요성을 제안
- 미래 산림자원의 증대를 위해 토질개선 등 변화된 산림환경에 따른 우량 수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조림수종 개발’을 제안
- 국산목재 소비를 증대하자는 취지에서 국산목재이용제도 개선, 산림환경세 도입 필요성 등 제안

(결론)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가치 증진 방안’을 ’21년 의제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방향은 사무국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

□ (향후 일정) 산림TF 일정 등 논의

- 차기 산림TF 회의 일정 : 12. 16.(수) 15:00

